

濟州島 家口構成의 變化：1960~85

李 昌 基*

I. 序 論

필자는 이미 발표한 두 편의 논문 「濟州島 家口の 크기(1987)」와 「濟州島의 家口構成(1988)」을 통해서 제주도 가구구성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밝힌 바 있다. 이 두 편의 논문은 제주도의 가구의 크기와 구성형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을 규명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주로 국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적인 평균치와 비교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므로 제주도 특유의 가구구성형태를 야기시키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데까지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특히 1988년에 발표된 「濟州島의 家口構成」은 1980년 자료만 가지고 전국 평균치와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時系列的인 변화추세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 바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60년 이후 1985년까지 제주도 가구구성의 변화추세를 시계열적으로 정리해 보고, 자료의 뒷받침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구구성의 변화에 작용하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흔히 가구규모의 축소나 가구구성의 단순화를 산업화나 도시화의 영향으로 쉽게 해석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해석은 산업화가 촉진되고 도시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경향을 설명하는 논리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과 같이 자원이 빈약하고 기후풍토와 토질등 삶의 조건이 매우 열악한 가운데서 합리적으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 소규모 가족을 자생시켜 온 경우(崔在錫：1978, 李昌基：1992)

嶺南大 社會學科 副教授

2 人文研究

에는 산업화나 도시화가 적절한 설명논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제주도의 가족이 규모가 작고 구성이 단순한 원인을 장남까지도 철저하게 분가하는 제주도 특유의 가족제도로써 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도 극복되어야 할 점이다. 물론 열악한 환경에 합리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장남까지도 분가시키고 부부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핵가족적 생활을 영위하는 제주도 특유의 가족제도가 가구구성을 단순화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제주도의 가족을 한국사회 전체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설명논리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 가족 자체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제도적 요인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가족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및 가구의 구성형태에 상당한 변화가 발견된다면 이러한 변화를 야기시킨 제3의 변화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족형태 혹은 가구구성의 변화도 그 사회의 역사적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대량의 인명손실이 있었거나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의 인구이동이 격심했다면 필연적으로 가구규모는 축소될 수 밖에 없으며, 출생율의 변화 또한 가구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제주도의 가구구성을 변화시킨 중요한 요인으로서 제주도의 가족제도 뿐만 아니라 日帝下의 島外移出과 4·3事件 및 6·25動亂에 의한 人命損失, 그리고 出生率의 變化에 주목하고자 한다.

II. 家口構成의 特徵과 그 變化

1. 家口構成의 特徵

제주도의 가구구성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平均家口員數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1925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국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가구원수를 산출해 보면 1925년부터 197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가구원수가 5.24인~5.57인 정도로 나타나는데 비해 제주도는 이보다 1.0인~

1.3인 적은 4.02인~4.50인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표1〉 해방전 평균가구원수 (인)

년 도	1925	1930	1935	1940
전 국	5.24	5.26	5.30	5.34
제 주	4.02	4.08	4.09	4.15

자료 : 각년도 국세조사보고서(현재인구원칙에 의함).
 1925~35년도 자료는 準世帶 제외, 외국인 포함.
 1940년 자료는 準世帶 포함, 외국인 제외.

〈표2〉 해방후 평균가구원수 (인)

년 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전 국	5.45	5.57	5.49	5.27	5.04	4.55	4.09
제 주	4.50	4.27	4.38	4.32	4.44	4.32	4.04

자료 : 각년도 국세조사보고서(1960년부터 상주인구원칙에 의함)
 특별조사구와 준가구 제외, 1인가구 포함.
 1966년 자료는 10% 표본추출집계치임.
 1970년 자료에는 준가구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전국적으로 평균가구원수가 꾸준히 감소되어
 온데 비해 제주도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약간 감소되는 경향을 보
 임으로써 전국과 제주도의 평균가구원수의 차이는 점차 축소되어 1985년에는
 전국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가구규모를 평균치적 개념인 평균가구원수로만 파악하지 않고 인원상의
 분포를 나타내는 가구원수별로 분석해 보면 제주도의 가구구성의 특징이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표3〉을 보면 1960년대 후반까지 제주도는 전국에 비해 4인 이하의 소인수
 가구의 분포 비율이 높고, 5인 이상의 다인수가구의 분포 비율이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인가구의 분포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포 경향은 평균가구원수가 적었던
 현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가구규모가 매우 작은 이러한 특징은 가구의 世代構成이나 가구의
 결합형태에 있어서도 매우 단순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4 人文研究

〈표3〉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의 변화

〈제 주〉

(천분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계
1960	89.8	153.0	173.5	169.0	141.3	110.6	74.7	45.3	22.9	19.8	999.9
1966	96.1	149.0	157.1	147.1	140.0	121.4	89.4	53.8	29.8	16.3	1000.0
1975	121.8	118.8	130.2	144.0	150.0	138.9	100.1	64.4	18.7	13.2	1000.1
1980	111.7	114.7	130.2	164.2	177.3	147.5	106.8	27.0	13.4	7.1	999.9
1985	126.7	118.3	138.9	196.4	188.9	143.5	50.3	23.4	8.7	4.9	1000.0

〈전 국〉

(천분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계
1960	23.0	70.9	117.8	147.2	159.1	152.9	127.3	88.9	53.5	59.5	1000.1
1966	27.9	76.7	116.1	139.8	154.5	155.7	131.9	91.7	59.2	46.5	1000.0
1975	42.3	83.1	122.5	161.4	183.2	165.8	117.3	76.9	24.5	22.9	999.9
1980	48.0	105.4	144.6	203.3	200.4	146.5	97.0	29.9	14.8	10.2	1000.1
1985	69.1	122.8	165.0	253.0	194.6	123.6	41.7	18.8	7.2	4.2	1000.1

자료: 각년도 국세조사보고서, 특별조사구와 준가구제외.
 1966년 자료는 10% 표본추출집계치임.
 1970년 자료는 1인가구를 집계하지 않아 제외시켰음.

〈표4〉 세대別 家口構成

(%)

		1960	1966	1975	1980	1985
1세대	제주	16.5	16.5	19.1	18.4	20.7
	전국	7.5	7.9	10.9	13.3	16.8
2세대	제주	63.8	62.7	65.7	69.4	67.9
	전국	64.0	66.1	68.9	69.5	68.1
3세대以上	제주	19.7	20.8	15.2	12.3	11.4
	전국	28.5	26.0	20.2	17.2	15.1
계	제주	100.0	100.0	100.0	100.1	100.0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각년도 국세조사보고서,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단독가구는 1세대가구에 포함시켰음.

〈표4〉를 보면 제주도에에는 단독가구(1인가구)를 포함한 1세대가구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고, 3세대이상가구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75년까지는 제주도의 1세대가구의 비율이 전국 평균의 약 2배를 상회하고 있다. 1세대가구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제주도에 단독가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는데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가구의 구성형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가구원의 결합형태를 분석해 보면 다음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구성이 비교적 복잡한 가구주의 부모를 포함하는 가구,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가구, 숙질간으로 이루어지는 가구 (<기타 2세대가구>), 기타 3세대이상가구나 4세대이상가구 등은 제주도가 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분포비율을 보이고 있다. 결합형태별 가구구성에서 특이한 현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전형적인 부부가족의 형태라 할 수 있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 제주도가 전국에

<표5> 결합형태별 가구구성 (%)

	제 주				전 국			
	1966	1975	1980	1985	1966	1975	1980	1985
단독가구	8.7	12.2	11.4	12.9	2.3	4.2	4.9	7.0
부부	7.2	5.8	5.6	5.5	4.5	4.8	6.1	7.2
기타1세대가구	0.6	1.1	1.4	2.3	1.1	1.9	2.3	2.5
부부+자녀	47.7	48.8	52.5	51.9	52.9	53.2	53.8	53.7
편부모+자녀	11.3	13.5	12.8	12.0	7.9	9.7	9.5	9.0
부부+양친	0.8	0.1	0.1	0.1	0.6	0.1	0.2	0.2
부부+편친	0.9	0.4	0.4	0.3	0.8	0.4	0.5	0.5
부부+자녀+형제자매	1.1	0.8	0.8	1.1	2.0	2.1	2.3	2.3
기타2세대가구	0.9	2.3	2.8	2.5	1.9	3.4	3.3	2.3
양친+부부+자녀	3.2	0.6	0.8	0.7	6.7	2.0	1.9	1.9
편친+부부+자녀	8.7	6.3	6.2	5.8	12.7	8.5	8.0	7.3
기타3세대가구	3.9	7.3	5.0	4.6	4.1	8.8	6.8	5.5
4세대이상가구	5.0	1.1	0.3	0.3	2.5	0.9	0.5	0.4
계	100.0	100.2	100.1	100.0	100.0	100.0	100.1	99.8

자료 : <표4>와 같음.

1960년까지는 결합형태별로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음.

비해 낮은 반면에 편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결손가족의 형태는 제주도에서 3%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도의 높은 사별율과 이혼율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2. 家口構成의 變化樣相

이와같이 제주도는 가구규모가 작고 가구의 구성형태가 매우 단순한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崔在錫도 제주도 동부지역의 한 부락을 집중 분석하여 이러한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崔在錫: 1977b). 그러나 제주도의 가구구성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전국적인 변화추세와는 다른 제주도 특유의 변화양상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첫째, 단독가구의 비율이 제주도에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그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비해 제주도에서는 1975년 이후 커다란 변화 없이 대체로 12% 전후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1960년부터 1975년까지 제주도가 전국수준에 비해 소인수가구의 비율이 높고 다인수가구의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변화의 추세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경향과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국적으로 소인수가구의 점유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도에서는 단독가구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소인수가구의 비율이 점차로 감소하고 다인수가구의 비율이 약간씩 증가하는 역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세째, 1975년 이후에는 소인수가구가 감소하고 다인수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던 제주도 특유의 변화양상이 상당히 진정되고 있다. 단독가구의 비율도 1975년 이후에는 12% 전후의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고, 2인~3인가구와 6인가구의 구성비율도 1985년까지 대체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평균치를 둘러싼 4인~5인 가구의 구성비율이 약간 상승하고 7인 이상의 다인수가구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전국적으로는 소인수가구의 증가추세가

지속되어 종래 제주도에서 소인수가구의 비율이 높았던 경향과는 반대로 1985년 이후에는, 단독가구의 구성비율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제주도가 전국에 비해 5인 이하의 소인수가구의 비율이 낮고 6인 이상의 다인수가구의 비율이 높은 역현상을 시현하게 되었다.

Ⅲ. 家口構成의 變化要因

지금까지 우리는 제주도 가구구성의 특징과 변화추세를 검토해 보았다. 그러면 제주도의 가구구성에서 전국적인 변화추세와 상이한 이러한 특징적인 변화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요인에서 연유된 것일까?

제주도의 가구구성이 전국적인 수준에 비해 규모가 작고 구성이 비교적 단순한 것은 물론 장남까지도 분가하는 제주도의 가족제도에서 일차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제주도의 가구구성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을 전국적인 수준과 비교하여 정태적으로 설명할 때는 제주도의 특유한 가족제도가 설득력있는 설명변수가 될 수 있지만 내부의 동태적인 변화까지 설명해 줄 수는 없다. 즉 1960년 이후 1인가구를 제외한 2인~5인의 소인수가구가 감소하고 다인수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장남분가의 가족제도로써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일제하의 과도한 도외이출과 4·3사건 및 6·25동란에 의한 인구결손,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제주도의 급격한 출생율 상승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주도의 높은 이혼율과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의 영향도 다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 짐작된다.

1. 長男分家와 核家族化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제주도에서는 차남 이하는 말할 것도 없고 장남까지도 결혼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분가하게 된다. 자녀를 모두 분가시킨 부모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제주도에서는 부모가족과 아들가족이 단일가구를

형성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崔在錫은 1970년대 중반 제주도 동부의 한 부락을 조사하여 부락내에 부모가 생존해 있는 기혼 장남가족 54사례의 분가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한 바 있다(崔在錫: 1976). 장남이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적인 한국가족제도 하에서는 이들 각 사례들은 모두 부모와 자식부부가 동거하는 직계가족의 형태를 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崔在錫이 조사한 부락에서는, 부모(주로 홀어머니)와 자식부부 혹은 조모와 손자부부가 동거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개 부부와 미혼 자녀를 중심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여 54사례가 96개의 가구로 분할되어 있었던 것이다. 자식이나 손자부부와 동거하는 경우는 결혼 직후 미처 분가하지 못한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노동력을 상실하였거나 홀로 생활하기 힘든 고령(대개 70대 이상)의 무배우자(홀아버지, 홀어머니, 할머니)들이었다. 부부가 모두 생존해 있거나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노동력이 있는 경우에는 좀처럼 자식들의 부양을 받지 아니한다. 마을 안에 아들이나 며느리가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는 자들 중에는 60대, 70대의 고령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부모가 자식가족(특히 장남가족)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가구를 분할하여 각각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서도 가구규모를 축소시키고 가구구성을 단순화시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단독가구를 양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자녀를 모두 분가시키고 부부만의 가구를 유지하다가 부부 중 어느 일방(주로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노동력이 있는 한 단독가구로 남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에 단독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사정은 단독가구주의 성격분석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표6〉 〈표7〉 〈표8〉을 보면 제주도의 단독가구주는 여성이 7할 내지 8할 이상을 점하고 있고, 50대 이상의 고령자가 많으며, 사별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성 단독가구주의 경우에 고령자와 사별자의 비율이 현격하게 높다. 필자가 1966년 국세조사의 10%표본조사자료를 바

〈표6〉 단독가구의 여성비율 (%)

	1960	1966	1975	1980	1985
제주	81.9	84.0	74.8	72.2	72.5
전국	73.6	72.9	64.3	64.2	62.8

자료 : 각년도 국세조사보고서, 보통가구.
 1960년 자료는 20%표본조사집계치임.
 1966년 자료는 10%표본조사집계치임. 1인의 준가구 포함.
 1970년에는 단독가구를 집계하지 않았음.

〈표7〉 단독가구의 연령분포 (%)

		19이하	20-29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계
1966	제주	3.7	6.4	4.4	8.3	17.5	31.1	28.6	100.0
	전국	16.9	28.3	10.1	9.7	13.2	14.6	7.2	100.0
1985	제주	7.6	20.3	7.9	6.3	10.3	19.4	28.2	100.0
	전국	5.9	34.8	11.6	8.6	13.1	16.1	9.9	100.0

자료 : 〈표6〉과 같음.
 1966년과 1985년 이외에는 단독가구의 연령분포가 집계되지 않았음.

〈표8〉 단독가구의 배우관계 (%)

		유배우	사 별	이 혼	미 혼	계
1960	제주	15.8	72.2	6.4	5.6	100.0
	전국	24.7	55.1	8.2	12.0	100.0
1985	제주	11.7	51.9	5.1	31.3	100.0
	전국	15.4	34.0	4.9	45.7	100.0

자료 : 〈표6〉과 같음.

당으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단독가구의 84%가 여성이며, 여성가구의 84%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90% 이상이 사별자로 나타났다 (李昌基 : 1987). 서부지역의 한 부락을 사례조사한 金惠淑의 1인가족연구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金惠淑 : 1985)

결국 제주도에서 가구규모가 작고 가구구성이 매우 단순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장남까지도 모두 분가시키는 관행과 그로 인한 단독가구의 양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2. 人口缺損

제주도의 분가관행이 제주도의 가구구성을 단순화시킨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는 점은 앞에서 살펴 보았지만 일제하의 과도한 도외이출과 4·3사건 및 6·25동란에 의한 많은 인명의 손실도 가구규모를 축소시키고 가구구성을 단순화시키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제하 제주도민의 도외이출은 일본 쪽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1910년 합병 당시 15-20명에 지나지 않던 재일 제주도민이 1930년에는 31,586명, 1938년에는 45,95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濟州島廳:「濟州島勢要覽」, 1939, p.12), 1940년 이후에는 전쟁에 따른 징병과 징용으로 강제 연행된 제주도민이 5만여명에 달하였다는 기록도 있다(濟州道:「濟州道誌(上)」, 1982, p.871). 이리하여 해방 직전에는 재일 제주도민이 약 10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朴用厚:「濟州島誌」, 白映社, 1976, p.176). 이들 중 상당수는 해방과 더불어 귀환했지만 절반이 넘는 약6만명은 그대로 일본에 잔류한 것으로 보인다(申幸澈: 1982).

또한 1948년에 발생한 4·3사건은 공식통계만으로도 당시 제주도민의 1할이 넘는 27,000여명의 희생자를 기록하고 있고(夫萬根: 1975, p.60), 6·25전쟁의 초기 경남북과 제주도의 장점으로 병력을 충원함에 따라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제주도의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인구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1930년 이전 출생자(1950년 당시 20세이상 연령층)들의 심한 인구결손을 야기시켰으며, 결혼인구의 대부분이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女多現像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李昌基: 1982b).

청장년층의 남성인구결손은 그 자체로서 가구규모를 축소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단독가구를 증가시켜 가구규모의 축소와 가구구성의 단순화를 더욱 촉진시키게 된다. 장남분가를 원칙으로 하는 제주도의 가족제도하에서 남편과 사별하였거나 장기 별거 중인 여성들은 자녀들을 모두

분가시키게 되면 노동력이 있는 한 독립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단독가구로 이행하게 된다. 1980년대 중반 제주도 서부지역의 한 부락을 사례조사한 金惠淑의 보고에 의하면 부락내의 여성 단독가구주 55명 중 16명이 4·3사건에 남편을 잃은 여성이었으며(金惠淑：1987), 1960년 국세조사자료를 이용한 필자의 통계적 분석에 있어서도 사별율이 높은 지역에서 가구규모가 작은 경향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이다(李昌基：1987).

1970년대 초반까지 제주도의 단독가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은 남성인구결손이 심했던 1930년대 이전 출생 여성들이 자녀들을 모두 분가시키고 계속 단독가구로 편입되어 오는 시기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던 사별여성들이 자녀들이 성장하여 결혼·분가함에 따라 점차 단독가구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남편이 생존해 있다면 이들은 당분간 부부만의 가족형태를 유지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1970년대 초반까지 제주도의 가구규모가 전국평균보다 작고 가구구성이 매우 단순한 데에는 철저한 분가관행 뿐만 아니라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남성인구의 과도한 결손과 그로 인한 사별여성의 증가, 단독가구의 증가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 여성의 사별율과 단독가구의 구성비율이 최근까지도 전국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李昌基：1987, 1988), 남성인구의 결손이 심했던 1930년대 이전 출생자들이 고령화되어 인구구조상에서 점차 사라지게 됨에 따라 단독가구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의 단독가구주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표7〉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중반 이후 제주도의 단독가구의 구성비율이 12%전후로 정체되어 있는 것은 젊은 연령층 특히 20대의 단독가구주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단독가구의 구성비율의 감소요인을 상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구결손이 심했던 연령층의 퇴조와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젊은 연령층의 단독가구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 出生率의 變化

1960년 이후, 소인수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인수가구가 감소하는 전국적인 경향과는 달리, 제주도에서 단독가구를 제외한 소인수가구가 감소하고 오히려 다인수가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제주도의 출생율 상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남성인구의 결혼은 그 자체로서 가구규모를 축소시키고, 장남분가 관행과 결부되어 사별여성에 의한 단독가구를 양산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결혼을 지연시키고 여성의 유배우율을 낮추어 출생율을 저하시키는데 기여한다. 실제로 1960년대 초·중반까지 제주도 여성의 초혼연령이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高甲錫·崔英姬: 1966), 가임연령층 여성의 유배우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李昌基: 1982a), 이로 인해서 제주도의 출생율이 전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것이다(李昌基: 1982a).

출생율은 특정기간의 총인구수(정확하게는 年央人口)에 대한 출생아수의 비율로서 산출하지만 출생신고의 지연과 누락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인구 동태통계의 신뢰도가 매우 낮고, 또 제주도를 대상으로 직접 출생율을 조사한 자료도 거의 발견되지 않아 제주도의 출생율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인구정태통계의 1세미만아 비율은 이론적으로 출생율과 매우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주도의 출생율의 대체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표9〉 연도별 1세미만아의 비율 (인구 1,000명당)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제주	30.25	34.29	34.85	32.02	24.62	20.01	14.81
전국	38.82	37.89	28.92	25.96	20.14	20.17	15.12

자료: 각 년도 국세조사보고서

〈표9〉에 의하면 제주도의 출산력은 1960년까지 전국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966년부터 1975년까지는 반대로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출생수준을 유지했던 1955년~1960년 기간에 제주도는 서서히 출생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현저한 출생율 저하를 기록했던 1960년 이후 1970년까지 고출생율을 지속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현저한 출생율 감소는 전국적인 경향보다 10년이나 늦은 1970년대초 이후에야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1980년 이후에는 전국수준과 비슷한 출생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세미만의 비율을 통해서 살펴본 제주도의 출생력 추세는 과거 5년 동안의 출생율을 반영하는 母兒比(15세-49세 여성인구 1,000명에 대한 0세-4세아의 비율)나 15세이상 여자의 평균출생아수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李昌基：1982a).

제주도의 이러한 출생율 추세는 연령별 인구구성, 여성의 초혼연령, 가임연령층여성의 유배우율, 피임실천율, 인공유산 경험율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李昌基：1982a) 가구의 크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3〉에 나타난 가구원수별 가구분포를 살펴보면 1960년부터 1975년까지 소인수가구가 증가하고 다인수가구가 감소하는 전국적인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제주도에서는, 1인가구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소인수가구가 점차로 감소하고 다인수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는 제주도에 고출생율이 지속되었던 시기와 일치한다. 높은 출생율은 각 가구마다 자녀수를 증가시켜 가구규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가구구성의 변화가 서로 다른 두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자녀의 성장, 결혼, 분가에 따라 무배우여성이 단독가구로 이행되는 과정이 촉진되었으며, 또 하나는 유배우가정이 출생율의 상승에 따라 가구규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단독가구의 증가추세는 전자를 대변하는 것이며, 단독가구를 제외한 소인수가구의 감소와 다인수가구의 증가는 후자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상반된 두 방향으로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그 변화의 효과가 상쇄되어 이 기간 동안 가구당 평균인원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5년 이후 출생율의 저하에 따라 소인수가구의 감소와 다인

수가구의 증가추세는 일단 어느 정도 진정된다. 다만 평균치를 둘러싼 4인~5인가구의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특히 1980년~1985년 기간에는 평균치를 둘러싼 4인~5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인수가구가 증가하고 다인수가구가 감소하는 일반적 경향을 시현함으로써 평균가구원수에 있어서도 현저한 감소를 기록하게 되었다.

제주도의 가구구성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추세에는 근대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상처받고 일그러졌던 제주도의 가족구조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깊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점차 정상구조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타의 要因들

제주도의 가구구성이 규모가 작고 구성이 단순하게 나타나는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장남까지도 철저하게 분가시키는 가족제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지만 일해하의 과도한 도와이출이나 4·3사건, 6·25동란에 의한 격심한 남성인구의 결손, 출생율의 변화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요인 이외에 제주도의 가구구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높은 이혼율과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의 촉진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들이 가구구성의 단순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짐작된다.

제주도에 이혼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1970년대 중반 제주도 동부의 한 부락을 사례조사한 崔在錫의 보고에 의하면 기혼 남성의 17.7%와 기혼 여성의 24.1%가 이혼에 의해서 초혼상태가 해제되고 있으며(崔在錫: 1977a), 1980년대 중반 제주도 서부의 한 부락을 조사한 金惠淑도 기혼 남성의 9.5%와 기혼 여성의 17.9%가 이혼에 이해서 초혼상태가 해제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金惠淑: 1986).

그러나 사별자의 재혼율이 매우 낮은데 비해 이혼자들은, 남자들의 경우 고령이나 심신장애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전부가 재혼을 하고,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85%(金惠淑: 1986) 내지 95%(崔在錫: 1977a)

이상이 재혼을 함으로써 한 시점에서 정태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이혼상태에 있는 자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국세조사에서 밝혀진 이혼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1966년에 15세 이상 남자의 1.3%(전국은 0.5%), 여자의 2.7%(전국은 0.8%)로 나타나고 있으며, 1985년에도 남자의 0.8%(전국 0.5%), 여자의 1.3%(전국 0.7%)만이 이혼상태에 있을 뿐이다. 이들 마저도 모두 단독가구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수가 친정의 동거인이 됨으로써(崔在錫：1977a. 金惠淑：1986) 실제 단독가구주 중에서 이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5%~6%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표8〉참조). 제주도에 이혼율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이혼이 가구구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미미한 것이다.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가구규모가 크고 가구구성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산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가구규모가 축소되고 가구구성이 단순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산업화 이전에 이미 자생적으로 핵가족의 형태를 유지해 왔고, 도시와 농촌 사이에 가구규모의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는 제주도에 있어서는(李昌基：1987) 어느 정도 산업화가 진전되더라도 가구구성의 외형적 변화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것 같다. 특히 제주도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사회 개발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보다는 인력수요가 적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산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가구구성에 대한 산업화의 영향은 더욱 미약했던 듯하다.

오히려 제주도에서는 교육의 보급 특히 대학의 정원확충에 의한 도시화의 영향이 산업화의 영향보다 크지 않았나 짐작된다. 1980년 이후 실험대학의 확대와 졸업정원제의 도입으로 대학의 입학정원이 대폭 늘어났고, 1982년 종합대학승격을 전후하여 제주대학에 많은 학과가 증설됨으로써 대학인구는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1976년에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재학생수가 2,800명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83년에는 9,800여명으로 늘어나서 무려 3.5배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경제기획원：「한국통계연감」, 1977. 1984).

이러한 대학인구의 증가는 젊은 연령층에 의한 단독가구와 형제, 자매 혹은 오누이로 구성되는 <기타 1세대가구>를 증가시킨다. <표5>의 결합형태별

가구구성을 보면 <기타 1세대가구>의 구성비율이 1966년 이후 서서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1985년에 대폭 증가하고 있고, <표7>과 <표8>에 나타난 단독가구의 연령분포와 배우관계에 있어서도 1985년에 20대와 미혼자의 비율이 폭증하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 해석된다. 물론 여기에는 취업을 위해 혼자 자취를 하거나 형제자매끼리 1세대가구를 형성한 경우도 적지않게 포함되어 있으리라 짐작되지만, 제주도의 산업구성이나 대학인구의 증가추세로 미루어 학업을 위한 도시화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제주도의 가구구성의 변화에 산업화나 도시화가 영향을 미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며, 대학교육의 보급에 따른 취학 목적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要約과 結論

지금까지 우리는 제주도의 가구구성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그 변화를 살펴보고 가구구성의 변화에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을 검토해 보았다.

제주도의 가구구성은 규모가 매우 작고 단순하며 특히 1인가구(단독가구)의 비율이 대단히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기본적으로 장남까지도 철저하게 분가하는 제주도의 가족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일제하의 과도한 도외이출과 4·3사건이나 6·25동란에 의한 인명손실 등의 인구결손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1960년 이후 1975년까지 제주도 가구구성의 변화양상은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변화추세와는 달리 소인수가구의 구성비율이 감소하고 다인수가구의 구성비율이 증가하는 특이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단독가구의 비율만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경향은 제주도 가구구성의 변화가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는 1960년부터 1970년초까지 고출생율이 지속됨으로써 유배우가구의 가구규모가 확대되어 다인수가구의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둘째는 남성인구의

결손이 심했던 1930년 이전 출생자들이 자녀들을 모두 분가시키고 계속 단독가구로 편입되어 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출생율이 빠른 속도로 저하하고, 남성인구의 결손이 심했던 1930년대 이전 출생자들이 인구구조상에서 점차 퇴조함에 따라 1975년부터는 소인수가구가 감소하고 다인수가구가 증가되던 경향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단독가구의 증가추세도 일단 정지된다. 다만 평균치를 둘러싼 4인가구와 5인가구의 비율은 1985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 1970년대에 나타난 제주도 가구구성의 변화양상은 제주도가 근대에 경험한 역사적 상처를 회복하고, 일그러진 가구구성이 점차 정상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1980년대에 들어 와서는 출생율이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젊은 연령층 특히 20대의 단독가구가 대폭 증가하여 제주도의 가구구성의 변화추세가 비로소 소인수가구가 증가하고 다인수가구가 감소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를 종합해 본다면 1960년대 이후 제주도의 가구구성의 변화는 장남분가를 원칙으로 하는 제주도 특유의 가족제도와 1930년대 이전에 출생한 연령층의 과도한 남성인구결손, 그리고 출생율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도시화의 영향은, 비록 교육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1980년대 이후에 다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더욱 촉진된다면 가구구성의 변화에 대한 도시화의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리라 짐작된다.

이런 점에서 가구규모의 축소나 가구구성의 단순화를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산업화나 도시화와 같은 일반적인 논리로 설명하는 경향은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찬가지로 장남까지도 분가하는 제주도의 독특한 가족제도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모든 현상을 장남분가와 결부하여 쉽게 해석해 버리는 경향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參 考 文 獻

經濟企劃院

各年度：「國勢調查報告書」

1977·1984：「韓國統計年鑑」

高申錫·崔英姬

1966：“濟州島 人口의 特質”，「人口問題論集」2，人口問題研究所。

金惠淑

1985：“濟州島의 一人家族研究”，「濟州大學校 論文集(사회과학편)」20。

1986：“濟州島의 離·再婚 研究”，「濟州大學校 論文集(사회과학편)」22。

朴用厚

1976：「濟州島誌」，白映社。

夫萬根

1975：「光復濟州 30年」，文潮社。

申幸澈

1982：“在日濟州僑胞：그 少數集團으로서의 性格과 階層構造”，「耽羅文化」創刊號，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李昌基

1982a：“濟州島의 人口成長”，「耽羅文化」創刊號，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2b：“濟州島의 性別·年齡別 人口構成”，「人口保健論集」2-2，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濟州島 家口의 크기”，「耽羅文化」6，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8：“濟州島의 家口構成”，「人文研究」9-2，嶺南大 人文科學研究所。

1992：“家族과 親族”，「濟州道誌」第5篇 第2章，濟州道。

濟州道

1982：「濟州道誌（上）」

濟州島廳

1939：「濟州島勢要覽」

崔在錫

1976：“濟州島의 長男家族”，「亞細亞研究」19-2，亞細亞問題研所。

1977a：“濟州島의 離·再婚制度와 非儒教的 傳統”，「震檀學報」43，震檀學會。

1977b：“濟州島 農村家族의 現實的 類型”，「農村問題」3，梨花女大 農村問題研究所。

1978：“濟州島의 自生的 核家族”，「世界的 文學」겨울호。

1979：「濟州島의 親族組織」，一志社。